

제 6, 7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벳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1년 7월 11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7 개입주의

개입주의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자기들의 목적들과 맞도록 경제 활동을 조작하는 시도들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경제 행위자들의 선호들을 정책 결정자들의 그것들로 대체하는 데 행정 국가의 재량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유에 대한 가격 통제의 예로 설명되듯이,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경제 활동에 대해 서로 관련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덧붙여서, 정책 결정자들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의 발생에 대처하고 최초의 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들을 낳게 하려는 후속 시도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더욱 더 광범위한 통제에 이르는데, 이것은 시장 과정의 활력을 위협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인간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체제인, 시장 과정에 개입하는 데 제한된 이성과 지식에 의존하므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 생긴다. 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은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개입이 없다면 존재할 현재 및 미래 이윤 기회들의 혼란이다. -중략- 둘째, 개입들은 종종 부를 증대시키지 않는 새로운 기업가적 활동 기회들을 창출한다. -중략- 셋째, 개입주의는 “체제 불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개입들에 관계할 때 경제 행위자들이 정부의 미래 조치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 잘 기능하는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들이 필요하다

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대적 확실성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할 수 있게 한다.

8 경기 순환

불황의 이론이 설명해야 하는 주요 문제는 왜 갑작스러운 일반적인 무리의 기업 실수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략- 요컨대, 국가의 모든 빈틈없는 사업가가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함께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들이 왜 모두 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드러났는가? 이것은 순환 문제의 중대한 문제이다. 순전히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실수의 무리가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훈련된 기업가들은 모두 동시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황-불황” 순환은 시장에서 화폐 개입, 특히 기업에 대한 은행 신용 확대로 발생한다.

하이에크의 런던 도착은 20세기 화폐 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 - 하이에크 케인즈 논쟁 -을 점화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에 《화폐론》을 출판했었는데, 그것에 관해 하이에크는 길고 비판적인 두 부로 된 논평을 썼다. 케인스의 입장에 대해 주요 문제점은 시장 사회에서, 시간을 통해, 계획들과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데서 이자율이 하는 역할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이에크는 주장했다.

이자율이란 시간 선호를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시간 선호 성향이 낮다.

미제스 - 하이에크 이론의 핵심에 있는 것은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만약 화폐 확대가 실질 가격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화폐는 중립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화폐 공급을 두 배로 하는 것이 실질 부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되게 하도록 모든 가격과 임금을 자동으로 두 배로 하는 것에 이르면 그것은 중립적일 것이다. 사람들의 은행 예금들은 두 배로 될 것이고, 가격들의 실질 구매력이 여전히 같도록 가격들도 두 배로 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관념은 화폐 확대가 모든 가격과 임금을 동시에 그리고 일제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아서 실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은 시간을 통한 자원들의 배분을 조정하는 시점 간 가격으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 혹은 미래에 대비해 저축하기 위해 현재 소비를 포기하기보다 현재에 기꺼이 소비하는 것을 포착한다.